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 외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운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찬보안 하이텔·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 담당 : 김은영: 796-8364)
제 목 해외진출기업감시 「지구촌 인권통신」 3호 발간
날 짜 1996. 8. 1. (총 6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해외진출기업 감시 「지구촌 인권통신」 3호 발간

해외 한국기업 부당 노동행위로서가 아니라 환경문제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다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辛尹煥, 서강대 정외과)는 '계간 해외진출기업감시 소식지' 「지구촌 인권통신」 3호 여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지구촌 인권통신」은 해외 한국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실상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일상적인 감시를 하여, 세계화 시대 기업의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3. 3호 주요 기사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한국기업이 폐수 방류를 하여 환경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도 과거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공해 산업을 수출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 최근 미국 「월 스트리트」지에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부당 노동행위로 노사분규가 잦다고 보도하였는데, 3월 16일자 「뉴욕 타임즈」에서도 인도네시아 신발공장의 노동조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기업은 훨씬 더 지독하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는 기사가 3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5.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중국 진출 기업 실태 조사를 다녀온 바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 월례 시민포럼과 기업의 노무관리 개선을 권고하는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엽서보내기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 * 별첨: 「지구촌 인권통신」 3호 목차와 주요 기사 끝

「지구촌 인권통신」 3호 목차

해외단신	베트남 노조, 한국인 고용주 기소 요구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지독하다"
특집 환경	공해산업의 해외진출 - 인도네시아 제일제당의 폐기물 방류 - 필리핀 (주) 경기색소 폐수 방류
국제회의 소식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회의
연재기획 단체탐방	프랑스 AGIR ICI(여기서 행동하라)
해외 리포트	중국의 리복과 나이키
좋은 이웃되기 시민포럼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월례 시민포럼 2~5차 요약
해외진출기업 동향	'96년 1월~5월 일간지 주요 기사 색인

특집 환경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부당 노동행위로서가 아니라 환경문제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해산업의 해외진출 辛尹煥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위장, 서강대 정외과)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모임은 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갈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해외진출기업에서 자행되는 저임금, 강제적인 시간외근로, 노조활동 방해와 탄압, 부당해고, 열악한 작업환경,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노동권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감시하고 우리 사회에 고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첫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맨 처음 진출하였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공청회, 시민포럼, PC통신, 「지구촌 인권통신」, 방송과 언론을 통해 국내외에 알리고자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태조사와 감시고발 활동은 중국, 베트남, 중미 등을 대상으로 계속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활동을 개시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한국의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 유럽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생겨나는가 하면,

이번 호 「인권통신」에서 신고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조미료 생산업체 제일제당이 폐수를 방류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역 어민과 주민들에 의해 공장시설이 전파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수력발전소댐건설에 참여한 한국의 동아건설은 이 프로젝트가 생태계를 파괴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연대한 23개의 현지 민간단체의 반대와 투쟁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 진출한 현대정공은 지난 4월 말 인종차별과 부당해고 등으로 5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같은 현대정공이 참여한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개스관 건설사업은 미얀마 군사정권을 지원하는 셈이라하여 또한번 국제연대 운동세력의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듯 대기업, 환경, 정경유착 등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난 문제점과 장애물들이 한국과 한국인들로 하여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웃나라 이웃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동도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유럽과 북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의 노동 통제 방식이며, 한국 교민들의 인종차별의식이다. 남미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쁜 이유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국 기민(僑民)들 탓이다. 태국과 오세아니아에서 추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심고 있는 사람들은 김포공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 고스톱, 고성방가, 매춘을 일삼는 우리 관광객들이다. 또한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몇몇 한국기업들은 현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한 채, 억압적이고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과 결탁하여 그들의 정당성을 높여 주는 경제 활동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해외진출기업의 노사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운동의 지평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고자 한다. 이번 호 「인권통신」에서 다룬 환경문제가 그 하나이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어글리 코리아” 문제가 다른 하나이다. 추태관광을 우선 접어 두고, 해외진출기업의 환경파괴와 공해방출 문제를 생각해 본다.

결코 우연이 아니겠지만, 지난 두세달 동안 우리 모임에 전달된 해외진출기업 관련 소식들은 환경문제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제일제당과 동아건설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일본에 소재한 아시아노동자정보교류센터(NAW)는 부산에 본사를 둔 (주)경기색소가 필리핀에서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마침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과 공해문제에도 관심을 갖겠다며 우리 모임과 연대를 요청하였고, 녹색연합에서는 <지구환경대탐사>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답사를 계획하여 동참을 권유하였다. 어느 일본인 연구자는 필리핀에서 한국 및 일본 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해 보겠다고 우리 모임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모두 반가운 일이다.

우리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몰려 나간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자본의 성격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중남미와 같이 초기 진출 대상국들이 임금상승으로 투자 이점이 줄어들자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최저임금 국가로 옮겨 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 환경 요건이 강화되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소위 3D직종에 대한 국내 노동자들의 기피현상이 생겨나자, 이와 관련된 업종

들도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공해산업들이 우리의 환경 무감각적인 생산과정을 그대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군사정권 시절 습득한 반인도주의적인 경영방식을 수출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입이 쓰다.

해외진출기업의 노사문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의 국가이미지와 국민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국가적' 공공재의 성격을 띠다면, 다국적 기업의 환경오염은 '지구적' 공공재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물론 둘다 자국의 근시안적 이익 확보를 위해 타국의 이익과 타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이기주의의 소치인 점은 서로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공해산업을 중국과 같이 인접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거대한 호수'에 다름 없는 서해를 공유하고 황사현상에서 보이듯이 한 하늘 한 지붕 아래 함께 숨쉬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환경문제에 있어서만은 서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아시아, 나아가 전 지구촌의 공업화와 거기서 파생되는 공해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파괴와 오염을 우선적으로 문제 삼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 제일제당의 폐기물 방류

수라바야 법률지원협회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의 조사 결과

1995년 11월 15일 제일제당(Cheil Samsung Indonesia)의 공장 폐기물 방류에 대한 양식업자들의 항의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르조소강으로 폐기물을 방류하는 제일제당의 배수로를 발견한 후에 발생한 것이다.

이 항의로 인해 제일제당, 양식업자 대표 그리고 빠수루안(PASURUAN)지역 지도자협의회(Muspida Pasuruan)의 3자간 회담이 열렸고, 배수로는 폐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주민들은 그 결정 실행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하던 중 이틀 뒤인 금요일 배수로는 다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항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1995년 11월 18일 토요일 이전의 질서있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던 시위와는 달리 폭력적인 시위를 초래했다.

토요일 시위 이후 64명이 1995년 11월 19일 일요일까지 빠수루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시위를 지켜본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사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려났고, 24명만이 남아 조사를 받다가 16명(조사 후 증거가 확보된 사람들) 외에는 모두 풀려났다.

주민들의 시위

위에서 언급한 사건 외에 전체적으로 바로 잡혀야 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1991년부터 행해진 양식장 오염 문제이다. 양식장 오염은 양식업자들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삶과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일제당은 1990년 아스프라 그룹과 합작으로 설립된 외자유치 기업으로 '미풍'이라는 상표로 조미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조미료 생산 공장은 빠수루안 아르조사리 마을(수라바야 근교)에 위치해 있으며, 1991년 5월 삼성 아스프라(현재 제일제당)시절부터 현지 양식업자들은 공장 뒤편에 설치된 배수로로 통해 유출되는 폐수로 인한 자신들의 양식장 오염을 문제화시켜왔다. 이 문제는 회사 지도부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되었는데, 당시 공장은 생산을 계속하였으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치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제당의 오염 문제는 당초부터 몇몇 단체/기관들(즉 빠수루안 머르데까 대학의 BKBH, 빠수루안 II급 지방정부, 동부자바 I급 지방정부, 환경보건 기술청 그리고 BPP)이 조사를 하였다.

공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에 대한 1991년 4월 25일 수라바야 환경기술청의 연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No.	분 류	기 준	검 사 결 과
1	pH	- -	7.9
2	BOD	50mg/l	365 mg/l
3	COD	100mg/l	500 mg/l
4	NH ₃ - N	1mg/l	65.0 mg/l
5	S	0.05mg/l	6.5 mg/l
6	NO ₂	1mg/l	0.0 mg/l
7	SS	200mg/l	300 mg/l

이러한 조사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빠수루안 지방 경찰청은 1991년 4월부터 제일제당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장 주변에는 많은 수의 경찰이 동원되어 지키고 있었고, 1995년 11월 19일 수위실의 방화, 정원을 파손하는 등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한 잔해들도 보였다.

공장의 뒤편에는 르조소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은 러꼭, 빠뚜구란, 자랑안 마을을 지나 바다로 흘러든다. 자랑안 마을에 사는 팔쿠르씨의 말에 따르면 이 강은 바다로 이어지며, 그 바닷물은 러꼬그, 빠뚜구란, 자랑안, 절락, 불란동안, 따빠안 마을의 양식업자들에 의해 작은 관개수로로 통해 양식장에서 재사용된다고 한다.

마두라 해협 북부해안의 양식장

자랑안 마을을 비롯해 이미 언급된 지역들의 주민들은 1991년부터 WINDU(8년산)새우의 양식에 실패해 왔다는 정보도 입수되었다. 1991년 이전에는 1헥타르당 반덴(bandeng, 바다고기) 750~1,000마리, 새우 10,000마리 정도를 양식할 수 있었으며, 현재 반덴 가격은 kg당 3,000루피아이고, 크기 15~20인 새우의 가격은 kg당 25,000루피아이다.

빠데안 마을에는 75헥타르의 양식장이 존재하며, 양식은 집약적 방식 10%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반집약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해진다. 절락 마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불란

동안 마을에서는 계속적인 수확실패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양식장들이 발견된다.

경찰당국은 현재 상부의 압력에 의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제일제당의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는 생활 환경부 장관인 사르요노 꾸수마안마자의 말처럼 제일제당 관련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는 적법성을 만들면서 혐의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반면에 양식업자들은 제일제당에 의한 르조소강 오염을 계속해서 문제화시킬 것이다.

필리핀 - 바타안(Bataan) 수출자유지역 (주) 경기 색소 폐수 방류

가나코 구쯔미 (Kanako Kutsumi, 오사카 외국어 대학원) 조사 보고서 발췌

마르코스 정권 기간동안 정부는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을 목표로 삼았다. 1972년 말 첫 수출 자유 지역이 바타안 반도 마리블레스(Mariveles)에 세워졌다. 그 곳은 마닐라에서 일직선으로 55km, 자동차로 15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1993년 수출 자유 지역에는 45개 기업이 있었다 (한국 기업 13개, 일본 기업 8개, 나머지는 유럽 기업). 1991년 100% 한국 자본인 한 색소 기업이 투자하였다. 55명의 필리핀 노동자들과 4명의 한국인 관리자들이 있는 작은 회사였다. 일본의 주문자 생산 방식은 전체 수출의 5~10%를 가져갔다. 생산품의 85%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5%가 필리핀에서 판매되었다.

1991년 11월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다. 1992년 3월 폐수 처리를 위한 장소가 한국 관리자들의 지휘 아래 필리핀 노동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 당시 한국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물을 버리도록 비밀 관을 만들게 했다.

필리핀 노동자들과 주민들은 말했다. "그들은 강에다 밤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비밀 관을 통해 폐수를 쏟아 버리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공장을 세우기 전에는 우리는 이 물로 목욕하고 가축들을 먹이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강에 들어가면 피부가 가렵고 쓰리다."라고 말했다. 이 오염된 물은 그들의 건강을 해쳤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병들어 갔다. 고용된 후 일주일 안에 몇몇 노동자들의 팔은 피부가 벗겨졌고, 몇몇 노동자들의 눈은 심한 고통으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공장 안에는 진료소도 충분한 의약품도 없다. 단지 일년에 한 번 의사가 검진을 위해 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T셔츠와 청바지 같은 가벼운 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들을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 하나가 각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것 역시 안료 가루의 먼지가 어쨌든 마스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단지 인터뷰에만 의존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수질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요하다.